

'내년에도 꼭 또 만나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폐막... 무주투어 등 호평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17일 4박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최동열 조직위원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수단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북태권도시범단 공연과 국제예쁜장기자랑대회 우승자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황 군수는 "태권도원을 뜨겁게 달궜던 열정과 태권도원을 향한 여러분의 애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대회, 성지로서 더욱 완벽해진 태권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수준 높은 세미나와 경기운영, 깔끔한 진행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과 K-타이거즈 등이 선보인 개·폐막식 태권도퍼포먼스와 반디랜드, 머무와인동 등지로 이어진 무주투어도 호평 받았다.

올해는 국제예쁜장기대회를 비롯한 생활무용대회, 줄넘기대회,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17일 4박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기자랑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함께 치러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했으며, 엑스포를 찾은 40개국 2,900여 참가자와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그리고 전 세계 태권도성지에서 훈련을 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내년 엑스포에도 꼭 다시 참가하

고 싶고 아름다운 무주, 멋진 태권도원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전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태권도 정신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태권도원과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에서 매년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향로 진안군수, 농식품부 발품행정

130억 국비 지원 요청

이향로 진안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군정 주요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군수는 17일 최방규 건설교통과장과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관련 국장과 관계자를 만나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8년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사업은 2018년 착수지구인 ▲용담면, 안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0억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10억원으로 총 130억원이다.

이향로 군수는 "진안군 농촌 지원을 보전하고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 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여성체육위원회 발족

무주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체육회는 무주군 여성체육을 활성화시켜 군민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은 관내 각 협회와 읍면체육회,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김정숙 씨가 선임됐다.

김정숙 위원장은 "우리 군도 여성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무주를 위해 여성체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더 힘차게 뛰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정수 군수는 "여성체육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체육에도 내실이 기대되고 지역에도 그 만큼의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우리 군이 태권도의 도시다운 면모를 제대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를 향한 군민들의 열정과 관심, 동참을 확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여성체육위원회가 속해 있는 무주군체육회는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무주군 관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무주군 체육발전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자리 규제개혁 군민 아이디어 공모

진안군, 내달 10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17일 일자리 규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일자리·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정책방향을 선택한 것에 발맞춘 것으로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자리 분야(일자리, 청년창업,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규제), 소기업·소상공인·창업 분야(창업활성화, 공중위생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금상, 은상, 동상(각 1명)과 입선(3명)의 영광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청년창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규제해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군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센터나 이메일 접수(aprike@korea.kr)로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금당 유영애 소리보존회 창립 특별공연 '성료'

강정렬 '가야금 병창', 김수연 '판소리', 유영애 외 '남도민요' 등 선보여

사단법인 금당 유영애 소리보존회 창립 특별공연이 15일 저녁 8시에 한영희 장수부군수, 유성엽 국회의원, 함형진 KBS전주방송 총국장, 전인삼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영숙 장수군수 부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세계 무형유산이며,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금당 유영애 소리보존회 창립 특별공연으로 마련됐다.

공연 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강정렬 선생의 '가야금 병창', 판소리 명창 김수연 선생의 '판소리', 유영애 선생의 3명의 '남도민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고깔 소고춤 보유자인 정인삼 선생의 '경기고깔 소고춤' 등 흔히 볼 수 없는 품격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에도 뜨거운 호평이 뒤따랐다.



사단법인 금당 유영애 소리보존회 창립 특별공연이 15일 저녁 8시에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본 사단법인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2호 '심청가' 예능 보유자 유영애 명창이 이사장으로, 10여명의 임

원들이 구성됐고, 올 6월에 설립하여 이번 창립공연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진드기 기피제 전 세대에 배부

진안군보건소는 17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 배부와 기피제 보관함 정비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6일 진안읍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진안군 전 세대(12,768세대)에 기피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진안군은 앞서 발생 위험 지역에 기피제 보관함 11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14대의 보관함에 대

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진드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최근 사망자가 발생했던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모자, 토시 등 맨 살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복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경로당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 신청

진안군은 17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감면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

내 경로당 140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설치신고필증과 전기요금고지서(또는 계량기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감면요청을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